

제 1 교시

국어 영역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전통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값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값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값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이 ㉢이라면 ㉠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의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와 ㉢ 이외에는 ㉠과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와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와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 정이 ㉡를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 그는 꿇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 매장에서 헌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문제풀이-1문단

㉠ 많은 전통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전통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를 구분하였다. ‘명제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글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모든 문제를 검토하자.

16.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

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관대한 내용일치 문제’이다.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많은 전통 인식론자들은 세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했고 베이즈주의자는 가장 강한 믿음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했으므로 5번 선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 있다.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이 맞다면 ㉢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 ②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 ③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 ④ ㉢은 ㉠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 ⑤ ㉢은 ㉠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이 모두 나왔으므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1문단에서 ㉠과 ㉢을 구분하였으므로 둘은 ‘다른’ 존재이다. ㉠이 맞다면, ㉢은 ‘㉠은 ㉢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미 자신이 ㉢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해당 명제가 거짓이라고 믿을 것이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옳다. 어떠한 명제에 대해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아닌 ㉢이다. 따라서 2번 선지는 옳지 않고, 답은 2번이다.

또한 ㉠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3번 선지도 옳다.

㉢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그것이 참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명제에 대해 딱 50%만 믿을 수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명제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4번과 5번 선지 모두 옳다.

결국 답은 확실히 2번이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조건화 원리에 대해 언급하는 문단을 읽은 후 살펴봐야 한다.

19. 다음은 읽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읽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의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와 ㉢ 이외에는 ㉠와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와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와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 정이 ㉡를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참조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보기> 문제이므로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풀 것이다.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 ② ㉡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1번 선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 선지의 ‘가졌다’는 어떠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닌, 경험의 의미가 담긴 듯하다.)

2문단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상당히 긴 문단이다. 읽은 후 내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정보를 찾아도 되므로 부담없이 읽어나가면 된다. 또한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조건화 원리'가 나왔으므로 18번을 살펴봐야 한다.

16.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게 될 때,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했고, 그 설명이 조건화 원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4번 선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

2문단의 예시에서 갑은 이미 '오늘 비가 온다'와는 다른 명제인 '내일 비가 온다'라는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으므로 5번 선지는 틀렸다. 또한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으므로 4번 선지는 옳다. 따라서 답은 4번. 그렇지만 다른 선지들까지 판단해 주어야 확실하게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 조건에 대한 내용에서(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A도 임의의 명제이고 B도 임의의 명제이다. 따라서 임의의 명제 A에 대해 임의의 명제 B가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옳지 않은데,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헛갈리는 경우에는 세모 표시를 하자.

또한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이미 4번 선지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1번 선지부터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모를 표시하거나 그냥 알 수 없다 넘어간 후에 4번 선지를 답으로 확정 한 이후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문단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㉞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값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㉟본다.

앞서 풀이했던 18번 문제의 3번 선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3문단을 읽으면서 생각했다면 바람직하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

3문단에서 새로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믿음의 정도가 바뀌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으므로 3번 선지는 틀렸다. 같은 이유로 1번 선지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SpokesAI

16.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

1문단 이후 베이즈주의자의 생각에 대한 내용만 나오므로 이 글의 주제는 베이즈주의자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했으므로 2번 선지는 완전히 틀린 선지이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기존의 명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 2문단에서의 예시와 같이 믿음의 정도를 바꿀 수 있고,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믿음의 정도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으므로 3번 선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 일단은 2번이 정답인데, 1번 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검토해야 한다.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 ② ㉡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 ③ ㉢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 ④ ㉣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와 2번 선지 모두 ‘의거하여’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으므로 2번 선지가 정답이고, ㉣는 생각에 관한 것이고 3번 선지는 돌봄에 관한 것이므로 3번 선지는 옳지 않다.

4문단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살펴 보았던 여러 선지들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선지들과 동일한 표현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 평가원은 친절하다. 마지막 문단이므로 남은 모든 문제 및 선지들을 해결하면 된다.

16.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므로 1번 선지는 옳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2번.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말라고 나오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확실히 틀렸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4번.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 ② ㉡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 ③ ㉢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 ④ ㉣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 ⑤ ㉤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

4번 선지는 병에 '걸린' 것과 관련이 있고, 5번 선지는 '교환'의 의미이므로 답이 아니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2번.

19.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의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와 ㉢ 이외에는 ㉠과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 ③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 ④ 병이 ㉡와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와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 ⑤ 병과 정이 ㉡를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

조건화 원리에 의하면, ㉠과 관련 없는 명제는 ㉠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변화를 주어진 안된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옳은 내용이다.

㉡의 내용은 만약 참일 경우 ㉠가 참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믿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병의 수첩이 흰색 수첩이기 때문이다. (흰색 수첩을 찾고 있고 체육관에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 체육관에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흰색 수첩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 수첩이 자기가 찾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번 선지는 옳다.

또한 ㉢의 내용은 만약 참일 경우, ㉠가 참이라는 것을 더 약하게 믿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병의 이름이 적혀있는 수첩이 집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적힌 수첩을 찾고 있고 체육관에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수첩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 수첩이 자기가 찾던 것이 아닐까 - 체육관이 아니라 집에 두고 온 것이 아닐까 -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3번 선지도 옳다.

4번 선지는 2문단의 조건화 원리에 대한 설명(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따라서 답은 5번인데, ㉡를 알게 된 후 조건화 원리에 의해 믿음의 정도가 변할 텐데, 원래는 서로 달랐던 믿음의 정도가 조건화 원리로 인해 변하면서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같아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에 대한 것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같아질 수 있을 것이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하는 주조직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발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27. ㉢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SpokesAI

문제풀이-1문단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하는 구조적 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세포, 조직, 장기 등의 이식과 관련된 주제인 듯하다. '정의', '비례관계' 등에 유의하며 읽어야 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필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한 예시로, 참고용이며 절대 외울 필요 없다.

-정의 : A는 B이다. / B를 A라 한다. / B인 A / A는 B인데, C와 같은 특성이 있다. (B가 A의 정의)

-비례관계 : A가 ~할수록 B는 ~한다. / A가 ~할수록 C로 인해 B가 ~한다. (A와 B의 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음)

※이 문단의 경우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가 정의로 제시되었고,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가 비례관계로 제시되었다.

모든 문제를 살펴보자.

2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동종은 같은 종, 이종은 다른 종이다. 따라서 다른 종이 유전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하는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고 나와있으므로, 2번 선지도 옳다.

아직 이종 이식과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선지들은 판단할 수 없다.

27. ㉠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는 마지막 문단에 나오므로 글을 다 읽고 풀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가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에서 ㉠가 '이상적인 이식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이미 1문단에 나온 내용을 이 문제와 연관시킬수도 있다. 1문단의 후반부에 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이식편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온다. 바로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를 해결하면서 지문을 더 읽으며 나올 수도 있는 추가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정답으로 고르면 될 것이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보기> 문제처럼 다 읽고 풀기에는 문제 자체가 간단해 보이고 내용이 적기에 ㉠과 선지들의 키워드를 슬쩍 보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보는 것도 좋다. ㉠은 이식편으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제작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수혜자와 동일할 것이다. 또한 일부 선지의 키워드인 전자 기기 인공 장기 및 동종 이식편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이식편에 비해 전자 기기 인공 장기가 가진 단점 중 하나가 전력 공급이 요구된다는 점이었으므로 1번 선지는 옳다.

동종 이식편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은 자신의 줄기 세포를 이용한 것이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2번 선지도 옳다.

아직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이종 이식편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나머지는 풀 수 없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과 ㉢이 언급된 문단을 읽고 풀어야 할 것이다.

SpokesAI

2문단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발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앞선 26번 문제의 1번 선지가 확실히 옳은 선지임을 알려주는 근거(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가 포함되었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

SpokesAI

이종 이식에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므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미니돼지에서 이식편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유전자 제거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 중 하나이고, ㉠의 경우는 자신의 유전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4번 선지는 옳다.

이종 이식편에서는 자연항체에 의해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은 이종 이식도 아니고, 유전자가 동일한 이식편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5번 선지도 옳은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2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혹시나 '이종'을 몰랐다고 해도 1번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비례관계'에 의해 거부 반응이 심하다는 것은 MHC 분자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3문단

이중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분을 잘 해주어야 한다.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 이고,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다.

2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

이종 이식의 문제점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3번 선지에는 일단 세모 표시를 하겠다.

레트로바이러스의 정의에 따르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다.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역전사가 일어난 이후이므로 역전사 효소는 숙주 세포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5번 선지가 틀린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5번.

답이 5번임을 고르고 나면 4번 선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는데, 모든 포유동물에 존재하므로, 포유동물의 조상이 과거에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치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

다른 선지들이 옳아서 답이 된 3번이지만, 3번이 틀린 선지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3문단의 첫 문장에서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이종 이식의 문제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번 선지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동종 이식의 문제인 것처럼 표현했으므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

㉠은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인데, 생명체 내 DNA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옳다.(어떤 세포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지문에 자세히 언급되지 기다리며 세모 표시를 해 두자.)

㉡은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역전사 과정을 통해 DNA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의 DNA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1문단에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만약 1문단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판단해보면 더 쉽다. ㉠은 생명체의 DNA의 일부로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리 없다.

4번 선지의 경우 ㉡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도 아닐 것이다.(㉡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DNA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5번 선지의 경우, ㉡은 맞으나 ㉠이 그렇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1번.(어떤 선지에 세모 표시를 해 두었는데 나머지 선지들이 전부 확실히 답이 아니라면, 세모 표시된 선지가 답이라는 뜻이다. 안심하고 선택하면 된다.)

4문단 + 5문단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5문단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번에 읽어 주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앞서 살짝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로 판단한 선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해주었다.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2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

이종 이식 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으므로 3번 선지는 옳다.

그리고 4문단의 1, 2번째 문장을 근거로 하면 4번 선지도 옳다. 모든 포유동물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므로 포유동물의 조상의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5번이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

4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은 모든 세포가 갖게 되었다고 언급되므로 1번 선지는 확실히 옳으며, 답이 맞다.

27. ㉠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

앞서 밝힌 많은 비용, 이식 가능한 이식편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미니돼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미니돼지는 우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DNA를 제거해야 하고, 장기의 크기가 사람과 유사하며,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상적인 이식편이라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와의 유전적 거리가 크지 않아야 좋은 이식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 3, 4, 5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정기 교체는 '전자 기기 인공 장기'의 대표적인 단점이었으므로 이상적인 이식편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받을 ㉣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국가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0. 밑줄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 8%가 넘도록
-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문제풀이-1문단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과 같은 규범이 아닌 국제기구의 결정에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듯하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제기구의 결정은 다른 규범과 달리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으로 인해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정의'가 나타났으니 눈여겨보고 넘어가자. 모든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므로 글을 다 읽은 후에 풀면 좋을 것이다.(사실 중간쯤 읽고 나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풀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다 읽은 후에 푸는 것이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내용일치 문제이므로 매 문단을 읽은 후 확인한다.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라고 정의에 나와 있으니 1번 선지는 옳다. 나머지 내용들은 아직 판단할 수 없으므로 넘어간다.

39. BIS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BIS 비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문단을 읽은 후부터 확인하면 된다.

40.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참조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보기> 문제이므로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풀이하도록 하겠다.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 언급된 문단을 읽은 후부터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는 마지막 문단이므로 글을 다 읽은 후 풀면 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 8%가 넘도록
-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각각의 단어가 나오는 문단을 읽은 후 판단을 해 주면 된다.

2문단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바젤 I' 협약과 BIS비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문장을 통해 BIS비율이 도입된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멘봉이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저 설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한 척' 하면 된다. (ex. 아! BIS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해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구나~ ; 이 예시는 설명을 그대로 따라읽으며 이해한 척한 경우이다. 이 예시처럼만 받아 들여도 충분하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이 문단에서 제시된 식(식은 반드시 문제에서 활용된다), 그리고 그 식을 구성하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다.

BIS비율을 계산하는 데는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이 필요하고, 자기자본은 설명에 그대로 나와있듯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채무의 합이고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며, 위험 가중치는 신용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부여되었다고 나와있다. 또 시장 위험도 따로 반영한다는 말도 나와있다.

각각의 용어가 어떠한 뜻인지는 따로 설명이 없다면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문제에서도 똑같은 용어를 제시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용어의 동의어를 지문에서 또 제시해준다면, 문제에서 그 동의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용어를 지칭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8번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없으므로 바로 39번으로 넘어가자.

39. BIS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2문단에서는 바젤 I 협약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므로, 1번 선지만 판단한다. 바젤 I 협약에서는 BIS비율에서 회사채와 관련된 요소가 위험가중자산 부분인데,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100%라고 획일적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신용도가 낮아지더라도 BIS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신용도와 위험 가중치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기도 하고, 애초에 위험 가중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곱해지는 보유 자산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문제들을 판단할 수 없었다. 평가원은 쓸데없는 내용을 지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풀이에 비교적 덜 사용된 2문단의 내용들은 아마도 <보기> 문제에서 많이 활용될 것이다. 특히 2문단에 제시된 식은 반드시 사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3문단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바젤 II' 협약에 대해서 바젤 I 협약으로부터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전히 BIS비율의 식은 동일할 것이고, 위험가중자산에 위험 가중치, 자산 유형, 신용도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용 위험은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하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일정 기준을 정해 주었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하는 방식을 감독 기관 승인하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비율(BIS비율의 식을 보라. 이 말은 BIS비율의 최저값을 의미한다)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BIS비율의 규제값을 의미하므로, 즉 8%를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바젤 II' 협약이 발표되면서 바젤 I 협약에서 쓰였던 기준들이 변경되었는가를 살펴보면 2번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세모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BIS비율 계산 시 각종 구성 요소의 계산 방식은 변했지만 결국 지문 내에서 '기준'이라고 명시된 규제 비율 8%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단서가 더 나온다면 확실하게 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선지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적절한 합리화 과정을 통해 답을 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머지 선지들은 판단할 수 없다.

39. BIS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바젤 II 협약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므로 2, 3, 4번 선지를 살펴보면 된다.

㉢가 나온 부분에서 '초과'라는 것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비율이 8%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8%보다 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최저비율이 동일하다는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바젤 II 협약에서 OECD 국가의 국채의 위험 가중치 범위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채를 줄이고 회사채를 늘린다고 해도 BIS 비율이 높아질거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국채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같다면 BIS 비율은 국채가 회사채로 변한다 해도 유지될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내부 모형이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인데, 그렇다면 시장 위험은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을 은행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4번 선지는 맞는 선지이며, 답은 4번이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 ② ㉡ : 8%가 넘도록 ○
-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그대로 바꾸어 넣었을 때 매끄러우면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다. 1번과 2번은 바꿔 쓸 수 있다.

4문단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III' 협약에서 기존 협약으로부터 변화가 있는 부분을 요약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앞서 세모 표시를 했던 38번의 2번 선지가 확실히 맞는 선지임을 알려주는 단서도 제공되었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2번 선지는 4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옳은 선지이다. 나머지 선지들은 여전히 판단할 수 없다.

39. BIS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

보완자본은 앞서 BIS비율 식에서 언급된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바젤 III 협약에서는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고 했으므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이다. 그런데 또 바젤 III 협약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하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기본자본의 비율(최소 6%)과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의 비율(이하 보완자본의 비율)의 합이 최소 8%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대 6%인 상황이라면 보완자본의 비율이 최소 2%가 되어야겠지만, 현재는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인 상황이므로 보완자본의 비율이 굳이 최소 2%를 맞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4번이다.

5문단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바젤위원회에 가입하기 전부터 BIS비율을 도입해서 시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를 통해 5번 선지가 옳음을 알 수 있고, 그 뒤 마지막 문장이 결국 바젤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나타낸 문장인데, 이 불이익을 피하고자 바젤 기준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4번 선지도 옳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세모 표시를 해 두자.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 ② ㉡ : 8%가 넘도록 ○
-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의 내용은 국제 금융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바젤위원회 가입은 그보다 훨씬 좁은 의미를 가지므로 3번 선지는 옳지 않다. 따라서 답은 3번.

6문단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국가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마지막 문단이므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

바젤 협약의 내용, 변화 양상, 그것이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상 등을 설명하는 것이 맞으므로 1번 선지가 답이다.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한 적이 없고,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한 적이 없으며, 국내법을 언급은 했으나 특징을 서술한 적은 없고,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이 글에서는 바뀐 적이 없으므로 2, 3, 4,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딱딱한 법인데, 1문단에서 조약과 국제 관습법을 신뢰를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는 국제기구의 결정과 구분지어, 제재를 통해 효력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고 암시하였으므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3번

40.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바젤 II 협약에서 모두 사용하는 값들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선 BIS비율을 구한다면 $\frac{(50 + 20 + 40)}{(300 + 300 + 400)} = 11\%$ 이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옳다.

현재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50%이고,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이며 그 값이 300억이다. 이 상황에서 위험 가중치가 20%로 바뀐다면 회사채의 위험가중자산은 $300 \times \frac{2}{5} = 120$ 억이다. BIS비율에서의 분모가 작아지게 되므로 BIS비율은 공시된 비율(11%)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2번 선지도 옳다.

현재 국채와 회사채의 위험가중자산은 동일하다. 앞서 보았듯이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표현되므로,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더 큰데 위험가중자산이 동일하다는 것은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회사채보다 더 작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3번 선지도 옳다.

바젤 I 협약에서는 국채 0%, 회사채 100%로 위험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50%가 적용된 회사채의 위험가중자산은 600억 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4번 선지도 옳다.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으로는 우선 단기후순위채무가 제외되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보완자본을 10억원 증액한다고 해도 기본자본의 비율이 $50/1000 = 5\%$ 밖에 되지 않으므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고 답은 5번이다.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 계산에 포함되는 각 요소의 값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정의'에 맞게 시험지의 빈 공간에 써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 ② ㉡ : 8%가 넘도록 ○
-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

'딱딱한 법'이 조약, 국제 관습법이므로 바꿔 써도 자연스러운 의미로 연결된다. 따라서 4, 5번 선지도 옳다. 답은 3번.

SpokesAI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

㉠은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므로 그에 맞는 사례를 선택하면 5번 선지가 정답이다.